

# 金東里 〈黃土記〉論

高 政 相

## 목 차

- I. 서 론
- II. 본 론
  - 1. 작품과 시대배경
  - 2. 풍수설화 모티프와 플롯의 유기성
  - 3. 작중인물의 갈등구조
  - 4. 주제의 상징성과 문학성
- III. 결 론

## I. 서 론

김동리는 가장 한국적인 작가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진다. 그는 그 자신만의 독특한 문학과 인간의 내면적 구원의 문제를 다룬 소설들을 끊임없이 추구해왔다. 그래서 그가 생존 작가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는 많은 부분들이 그

의 문학과 문학적 배경이 되는 사상적 측면에 대한 연구들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까지 김동리 문학에 대해서 논의된 주요한 것들을 보면

첫째, 김동리 문학의 특질은 삶의 근원을 추적하는 데 있어 주로 지방의 전설이나 종교, 미신 등을 그 매체로<sup>1)</sup> 취하고 있으며

둘째, 샤머니즘을 소재로 의식의 발생사를 보여주는 그의 문학적 특성 및 방향은 지극히 한국적·허무적·신비적인 것이 그 특색이 된다. 그의 모든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허무의 수락이나 복종이 아니면 허무에의 투신이었고 허무에의 도전이나 반항이 아니면 그것의 초극이었던 것이다.<sup>2)</sup>

셋째, 김동리 문학의 의미내용은 인간의 운명, 죽음, 근원과 같은 존재론적인 것이요, 관념론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sup>3)</sup>

넷째, 동리문학은 하나의 종교다<sup>4)</sup>라는 견해 등으로 논의의 초점이 거의 주제연구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김동리 문학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만 살피고, 그의 문학적 성격을 선불리 규정지우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문학연구의 본령은 작품에 나타난 인생의 해석 및 표현 형식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문학 비평은 문학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구체적인 사상과 정서를 발견하여 그것을 독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하여 먼저 작품 자체의 분석과 해석을 선행작업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즉, 작품의 내재적 분석을 통하여 소설미학적 차원에서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 작가가 남긴 작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김동리 만큼 다각적인 검토와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하는 작가는 드물다. 왜냐하면 김동리 소설들은 매우 다양한 소재와 주제, 작품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1) 白鐵, 新文學思潮史(신구문화사, 1968), pp. 532~534.

2) 趙演鉉, 韓國現代作家論(청운출판사, 1965), pp. 17~21.

3) 丘昌煥, "金東里文學世界", 東里文學이 韓國文學에 끼친 영향(중앙대 문예창작과, 1979), p. 18.

4) 高 銀, "室內作家論", 月刊文學(제2권 4호, 1969), p. 265.

따라서 본고는 동리문학 연구에 있어 주로 개괄적 연구에 치우친 종래의 연구 경향을 지양하고 작품의 독특한 미적가치를 추출해내고자 한다. 김동리의 작품 중에서 토착적이고 민속적인 소재를 완전한 현대적 소설미학으로 수용해서 주제를 보편화시킨 작품으로 평가받는 <황토기>의 총체적인 작품성격을 작품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상황과 작품의 중심이 되고 있는 실화모티프와 플롯, 인물의 갈등구조, 주제 분석 등을 통하여 구조주의적 방법과 해석학적인 방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 II. 본 론

### 1. 작품과 시대배경

한 작가의 문학작품과 그 작품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상황이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작가 자신들이 시대적 상황과의 관계를 긍정하든 부정하든 간에 한국의 문학만큼 시대성과 밀접한 함수관계를 지닌 경우도 드물다. 따라서 <황토기>의 작품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품 외적인 요인이지만 작품이 발표되던 시기를 중심으로 시대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동리는 1935년 중앙일보에 <화랑의 후예>가, 1936년 동아일보에 <산화>가 당선되면서부터 문학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때는 일제 식민통치 기간 중에서도 문인에 대한 억압이 최고 절정에 달하던 시기였다.<sup>5)</sup>

전시체제로 더욱 경직화되어 갔던 일제의 탄압정책은 한민족의 생존을 극도로 위협하였다. 일제는 1937년의 중·일전쟁, 1941년의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국가 총동원령을 실시하면서 민족말살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朝鮮思想犯

5) 李美林, 金東里 初期文學研究(숙명여대 대학원, 1985), p. 11.

保護觀察令이란 악법을 만들어 사상탄압을 강화하였고, 1937년에는 皇國臣民 誓詞란 呪文을 만들어 소위 천황에 대한 억지 충성을 강요하였다. 또한 1940년부터는 國民總力朝鮮聯盟과 臨戰報國團이란 것을 만들어 지도층 인사들을 친일여론의 환기와 전쟁협력에 강제로 동원하였다. 따라서 이와같은 상황에서 민족적인 문화활동이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 시기의 문인들에 대한 탄압은 극심했는데 특히 민족주의 세력, 또는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탄압이 중심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34년의 문인체포사건이었다. 1934년 5월부터 일본 헌병은 한국문인들의 대량검거 선봉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것이 이른바 '신건설사건' 이었다. 카프의 연극 단체인 '신건설'이 용산지구에서 소위 불온배자를 배포했는데, 이 배자를 뿌린 학생이 전북 금산에서 피검된 후, 이로 인해 80여명의 카프맹원이 검거되고 23명의 문인들이 기소되었다.

민족주의 문학에 대한 탄압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우리말 잡지, 우리말 신문에 대한 탄압은 극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민족주의 문학을 한다는 것은 일제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민족주의 문학은 일제의 가장 심한 탄압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되자 이 시대의 문인들 가운데 1937년 이후에도 변절하지 않은 사람은 극히 드물 정도<sup>6)</sup>로 이들은 역사의 희생물이 되었고, 이광수와 최재서의 변절, 이육사와 윤동주의 옥사 등 문인들은 자기정립의 자세를 취해야만 했다. 이 시기에 일제에 대해 협조하지 않거나 저항하던 문인들은 절필을 하거나, 민족의식이나 억압받는 상황에 대한 극복의지를 작품표면에 드러내어 표현하지 못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밖에 없었다.

1940년 김동리는 일제의 어용문화단체인 文人報國會와 國民文學聯盟의 가입을 거부하며 붓을 꺾음으로써 작가의 민족적 의지와 소극적 저항을 보여주었다.<sup>7)</sup> 그 당시 창작 행위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던 김동리의 주변적 상황과 그것이 주는 심적 고뇌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6) 金治洙, 植民地時代의 文學研究(김은생, 1980), p. 28.

7) 李美林, 金東里 初期文學研究(숙명여대 대학원, 1985), p. 12.

“그때는 물론 형님의 구속도 구속이지만 그외에도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뼈아픈 사건들이 겹쳐져 일어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광명학원의 폐쇄가 나에게 모진 상처를 준 것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뒤이어 나의 작품들이 계속적으로 검열에 걸려 문장지의 <하현>, 인문평론지의 <소녀>, 조광지의 <두꺼비> 원고마저 돌아오지 않았고 끝내는 우리말 신문, 잡지들의 폐간 사태 등 일련의 사실들이 그것이었다.”<sup>8)</sup>

1940년 절필하기 전까지 김동리도 이런 시대적 상황 아래서 다술사, 해인사 등지에서 은거생활을 하며 민족의 울분과 한을 직접 표출하지 못하고 민족적인 소재를 상징화하여 나타내었다. 이를테면 김동리가 즐겨 쓴 토속적 소설의 창작은 비정치적인 행위인 듯 하면서도 정치성이 교묘하게 은폐되어 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김동리 소설들의 모티프인 순수한 토속적 신화는 일제에 의하여 강탈된 조국의 신화, 곧 유구한 역사와 국가의 회복을 위한 수단이라는 정치적인 의미가 부수적으로 따를 수 있기 때문이었다.<sup>9)</sup> 이렇게 볼 때 <황토기> 또한 이런 시대상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황토기>의 주제의식은 일제의 검열과 압제상황 아래서 고도로 상징화될 수 밖에 없었다.

이상과 같은 작품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에는 <황토기>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풍수설화 모티프와 플롯간의 유기적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풍수설화 모티프와 플롯의 유기성

### 1) 풍수설화 모티프

소설은 사실과 진실을 바탕으로 엮어지는 허구적 현장이라고 할 때, 그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모티프를 잡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재재의 선택이 다양하여 현실로부터 신화·전설·민담에 이르기까지 무제한의 영역을 필요로 하는 것도 사실이다. 김동리의 <황토기>는 옛

8) 金東里, “自傳記”, 취미와 인생(문예창작사, 1978), p. 334.

9) 李甫永, 植民地時代文學論(필그림, 1984), p. 103.

날 풍수설의 고장인 황토골에 현대의 장사가 나타나서 황토골의 운명(피로 물들인)과 장사의 비극적 운명에 반항하지만 결국 좌절되고 마는 것을 중요한 테마로 잡고 있다. 그리고 <황토기>는 상룡설, 쌍룡설, 절맥설 등의 세 가지 풍수설화 모티프를 통하여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플롯 체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장에 제시된 배경묘사와 세 가지 설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우리재(鵝述嶺)에서 금오산(金牛山)쪽으로 뻗쳐 내리는 두 산맥이다. 등성이를 벌거벗은 채 이십리 삼십리씩을 하나는 서북, 또 하나는 동북으로 뒤편내려와서는, 겨우 황토골이라는 조그만 골짜기 하나를 남은 것 뿐으로, 거기서 그 앞을 흘러가는 냇물을 바라보며, 동네 늙은이들의 입으로 전하는 상룡(傷龍), 또는 쌍룡(雙龍)의 전설을 이룬 지리적 결구(地理的 結構)는 여기서 끝을 맺는 것이다.<sup>10)</sup>

지명전설의 성격을 띤 이 이야기는 작품의 무대가 되고 있는 황토골의 지리적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 황토골을 중심으로, 서북과 동북으로 뻗쳐내린 두 산맥은 傷龍이 되고 만 雙龍이며 상한 용의 정기를 받고 태어나 비극적 인생을 산 억쇠와 득보를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두 산맥 사이에 위치한 황토골은 숙명적으로 끝없는 싸움의 장소가 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그 싸움은 비극으로 결말지어짐을 암시하고 있다. 황토골이라는 지명에서 흙의 색깔이 붉다는 자체부터가 비극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작품의 시대배경과 주제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세 가지 설화가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상룡설. 옛날 등천(騰天)하려던 황룡 한 쌍이 매마침 금오산에서 굴러떨어지는 바위에 맞아 허리가 상하니라. 그 상한 용의 허리에서 한없이 피가 흘러내려 부근 입대를 붉게 물들이니 이에서 황토골이 생기니라.<sup>11)</sup>

10) <黃土記>는 몇 차례의 개작이 있었다. 본고는 민음사에서 1989년에 출판한 韓國名短篇選에 실린 작품을 텍스트로 하였다.

金東里, 韓國名短篇選(민음사, 1989), p. 381.

11) 金東里, 前掲書.

상룡설화에서는 억쇠와 득보가 결국 인간의 힘이 아닌 그 이상의 자연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금오산에서 떨어진 바위에 맞아 상한 용들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때의 바위는 절맥설화의 대외적 갈등에서의 중국 장수나, 운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파괴는 아니다.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자연의 힘, 또는 신의 섭리와 같은 거대한 힘에 의하여 좌우된 손상을 의미한다. 그런만큼 바위가 굴러떨어진 것은 운명적인 것이며, 거기에 따라 억쇠의 운명은 숙명적으로 비극일 수 밖에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쌍룡설. 역시 등천하려던 황룡 한 쌍이 바로 그 전야(前夜)에 있어 잠자리를 삼가지 않은지라 상제(上帝)께서 노하시고 벌을 내리사 그들의 여의주(如意珠)를 하늘에 묻으시매 여의주를 잃은 한 쌍의 용이 슬픔에 못 이겨 서로 저희들의 머리를 물어뜯어 피를 흘리니 이 피에서 황토골이 생기니라.<sup>12)</sup>

상룡설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힘에 의하여 생긴 비극이라 한다면 쌍룡설은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라 할 수 있다. 등천하게 되는 전날 잠자리를 삼가지 않고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변신과 초월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서로의 머리를 물어 뜯으며 서로를 파괴하고 만다는 이야기다. 풍수설에서 본다면 상룡설이 산의 중턱이 파괴된 데 비하여 쌍룡설은 산의 정상부분이 훼손되고 있다. 용의 손상은 산허리와 산꼭대기로 변이를 일으켰지만 공통적으로 피를 흘리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길지인 땅이 황토로 뒤덮여 폐허화되고 있다. 용의 기상으로 보아 틀림없이 장수가 태어날 땅이었지만 용의 손상은 결국 불운한 영웅, 좌절될 운명을 타고난 장사밖에 탄생시키지 못하고 만다. 이것은 억쇠와 득보, 본인의 불륜관계와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한 비극을 암시한다. 따라서 삼각관계로 얽혀지는 불륜은 예견되었던 행위였고, 결정되어 있는 운명의 길을 걸은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억쇠와 득보는 이것을 계기로 삼아 사투를 벌인다.

황토골에는 이외에도 절맥설이 전해온다.

12) 金東里, 前掲書.

절맥설. 옛날 당(唐)나라에서 나온 어느 장수가 여기 이르러 가로대 앞으로 이 산에서 동국의 장사가 난다면 감히 중원을 범할 것이라. 이에 혈을 자르니 이 산 골에 석달 열흘 동안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이로 말미암아 이 일대가 황토지대로 변하니라.<sup>13)</sup>

앞의 상룡설과 쌍룡설의 신화적인 형태에서 이 절맥설은 민담적인 형태로 변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설화는 胡宗杲의 斷脈說話와 王亂 때의 李如松의 설화가 습합되어 변형된 것이다. 상룡설이 인간의 힘으로 거부할 수 없는 강한 힘에 의해서 傷龍이 되고만 데 비해서 쌍룡설에서는 자신의 과오로 인해 스스로 비극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절맥설은 좀더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민족과의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절맥설의 상징적 의미는 식민지 시대의 일제에 의하여 억압받는 민족의 비극적 숙명을 나타낸다. 당시 일제는 생명의 절규를 부르짖는 우리 조상들을 탄압하여 이 강토를 선혈로 물들였다. 따라서 황토골은 다름아닌 조국의 상징적인 축도<sup>14)</sup>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황토기>서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설화는 억쇠와 득보의 비극적 삶이 운명적인 것이며 그들의 싸움 또한 운명적인 것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일제의 압제와 끊임없이 싸워야만 하는 민족의 숙명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2) 플롯의 기능과 체계

<황토기>의 플롯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고는 우선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분절개념을 원용하여 텍스트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거나 약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분절단위(단락소)를 정하고자 한다. 그리고나서 그 단락소의 의미 기능을 밝히고 결론적으로 플롯체계를 작성하여 작품의 미적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13) 金東里, 前掲書.

14) 李泰東 편저, 한국대표명작 - 김동리(지학사, 1985), p. 236.

<황토기>는 72개의 단락소가 이끄는 의미망의 형태로 본질하여 재구성할 수있다.

<도입액자>

1. 두 산맥이 만나는 황토골에는 상룡, 쌍룡의 전설이 전한다.
2. 등천하려던 황룡 한 쌍의 피가 흘러 황토골이 생겼다.
3. 등천하려던 황룡 한 쌍이 벌을 받아 머리를 물어뜯어 황토골이 생겼다.
4. 당나라 장수가 혈을 잘라 황토골이 되었다.

<내부이야기>

-제1장-

1. 황토골 앞뜰에서는 두레논을 매고 있다.
2. 억쇠는 등떨어져서 혼자 논을 맨다.
3. 억쇠는 술을 이고 온 분이에게 늦었다고 화를 낸다.
4. 분이는 강짜를 부린다.
5. 득보가 산비탈에서 내려온다.
6. 득보는 비력의 소유자다.
7. 득보는 억쇠에게 술을 모두 거르라고 한다.
8. 억쇠와 득보의 눈에서 불길이 인다.

-제2장-

9. 안내벌은 돌이 싸우기에 가장 알맞은 곳이다.
10. 두 사람은 벌거벗고 술을 마신다.
11. 안내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두 사람에게는 큰 보람이다.
12. 득보가 먼저 싸움을 걸었다.
13. 득보는 억쇠를 때리고 억쇠는 맞으며 즐거워한다.
14. 억쇠와 득보는 피투성이가 되어 자빠진다.
15. 저녁무렵에 다시 일어나 술을 마신다.
16. 억쇠가 싸움을 먼저 걸고 주먹질을 한다.

17. 억쇠와 득보는 껴안고 자빠진다.
18. 해가 진 뒤에도 들은 앞치력 뒤치력 거린다.

-제3장-

19. 억쇠와 득보는 지난해 봄에 처음 만났다.
20. 억쇠는 황토골 태생으로 가슴에 불길을 감춰온 사람이다.
21. 열세살 때 억쇠는 들들을 들어 올린다.
22. 마을 노인들은 억쇠 어깨에 침을 맞히기로 결정했다.
23. 억쇠의 백부는 재촉했으나 억쇠 아버지는 거절했다.
24. 억쇠의 부모는 억쇠에게 나서지 말 것을 당부했다.
25. 억쇠는 일체 힘겨움을 하지 않았다.
26. 억쇠는 힘을 쓰고 뜯 욕망으로 괴로워한다.
27. 억쇠 백부는 이사를 떠나버린다.
28. 억쇠는 스스로 낮으로 어깨를 끊어버린다.
29.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힘쓸 날을 기다리라고 유언한다.
30. 억쇠는 힘을 쓸 날을 기다린다.
31. 억쇠는 주막 출입을 하기 시작했다.
32. 어느날 나그네 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
33. 사내는 힘이 강해서 노름군들을 땅에 매꿨었다.
34. 억쇠는 사내의 목살을 잡는 순간 장사임을 깨달았다
35. 순간 억쇠는 몸이 떠오르는 듯한 쾌감을 느꼈다.

-제4장-

36. 득보는 억쇠에게 분이를 준다.
37. 억쇠는 분이와 득보의 애매한 관계에 못마땅해 한다.
38. 득보는 형제를 죽인 사연이 있었다.
39. 분이는 득보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40. 분이는 득보와 잠자리를 같이한다.
41. 분이의 불량한 성행은 들의 싸움을 돋구었다.

42. 분이는 억쇠와도 잠자리를 같이한다.

-제5장-

43. 억쇠는 분이를 포기하고 설회를 맞이한다.

44. 억쇠는 설회에게서 자식을 얻기를 기대한다.

45. 설회는 예쁘고 암전한 여자였다.

46. 득보도 설회를 탐내고 있었다.

47. 득보는 설회집을 들락거린다.

48. 설회가 등장하자 항상 설회가 싸움의 동기가 되었다.

49. 분이는 밤마다 설회를 노린다.

-제6장-

50. 억쇠와 득보가 설회에게 열을 내자 분이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

51. 어느날 밤 분이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52. 비명을 듣고 억쇠 어머니는 병이 위중해져 숨지고 만다.

53. 분이는 억쇠의 아이를 갖고 있는 설회를 살해한다.

54. 분이는 득보도 죽이려 하나 실패한다.

55. 득보를 발견한 억쇠는 득보가 죽을까봐 걱정한다.

56. 분이는 영원히 자취를 감춘다.

-제7장-

57. 득보는 상처가 나았으나 혀고 말았다.

58. 득보는 억쇠에게 분이를 찾아오라고 한다.

59. 득보는 분이를 찾으러 집을 나선다.

60. 억쇠는 득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

61. 득보는 분이 딸을 데리고 돌아온다.

62. 득보는 자주 분이를 찾아 나선다.

63. 득보는 억쇠가 자신의 시비에 응하자 기뻐한다.

64. 득보는 분이가 언양에서 죽었음을 털어놓는다.

65. 득보가 단도를 내놓으며 싸움을 걸었다.

66. 억쇠는 득보를 안내벌로 보낸 뒤 술을 들고 쫓았다.
67. 억쇠는 가슴이 설레며 걸음이 흥청거렸다.
68. 해가 황토제에 설핏할 때 억쇠와 득보는 용내가로 내려가고 있었다.

도입부에서 황토골의 지리적 배경이 묘사되고 세 가지 풍수설화를 제시한 것은 일종의 도입액자를 설치하기 위한 의도적 배려로 보인다. 그리고 내부이 야기의 비현실적인 사건들을 암시하고 억쇠와 득보의 허무한 싸움이 운명적인 것임을 말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도입액자의 의미장은 <운명론적 허무>라고 명명할 수 있다. 그리고 황토골의 지리적 배경과 두 용의 운명은 이민족과의 갈등, 대립 그리고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민족의 숙명성'을 상징한다.

내부이야기의 1장-3장의 의미기능은 <허무에의 인식>이다. 1장에서는 도입액자에서 전개하고 있는 장사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억쇠와 득보는 두개의 산맥인 동시에 두 용을 의미한다. 2장에서는 억쇠와 득보의 싸움이 전개된다. 억쇠와 득보의 싸움은 상대를 누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억눌린 욕망-힘을 써보고 싶은-의 발산이다. 또한 억쇠와 득보의 싸움이 목적이 없는 일종의 허무에의 인식이라고 보았을 때는 비통한 생의 한 행위라 하겠다. 그리고 억쇠와 득보의 사투는 일제와 싸워야 하는 '민족의 운명'을 상징한다. 3장에서는 억쇠의 비극적 운명과 사회로부터 수용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갈등과 욕망이 그려지고 있다. 억쇠는 13세때 들들을 들어 황토골에 장사가 났음을 알린다. 그러나 예로부터 황토골에 장사가 나면 불효자식이나 역적이 된다고 믿는 동네 어른들은 동회를 열어 억쇠의 어깨에 침을 맞히기로 결정한다. 억쇠의 부모가 말린 탓으로 모면하기는 했으나 결국 억쇠는 스스로 낮으로 어깨를 찍어 피를 흘린다. 이것은 당나라 장수에 의해서 맥이 잘린 황토골에서 태어난 장사의 운명을 나타내며, 억쇠는 이 사건을 계기로 허무에 대하여 인식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쓸 수 없는 억쇠의 운명은 일제에 의하여 억압받는 '민족의 비극적 상황'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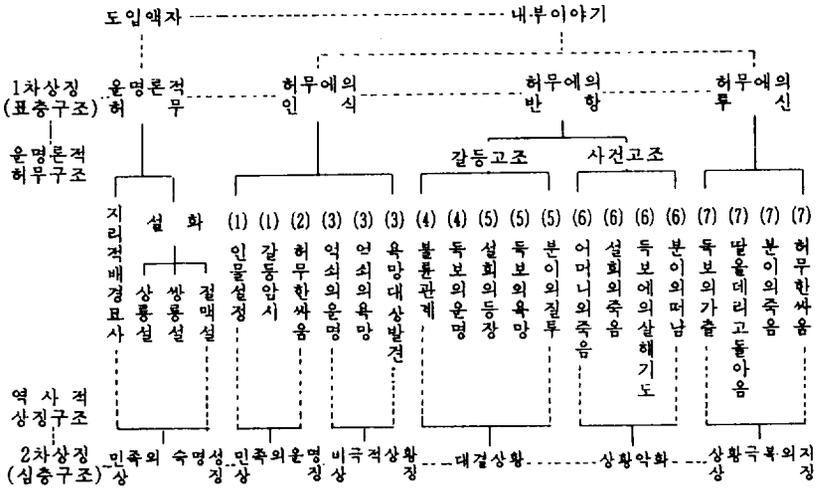
4장-6장의 의미망은 <허무에의 반항>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4장에서는 억쇠와 득보, 분이 사이의 불륜관계와 득보의 과거가 나타나고 있다. 쌍룡이 잠자리를 삼가지 않았기 때문에 비극이 일어났듯이 세 인물의 성운리의 타락상은 결국 그들의 운명이 비극으로 결말지어짐을 암시한다. 5장에서는 4장의 불륜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이 설희의 등장으로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 억쇠는 자식을 얻기 위하여 설희를 데려오지만 득보 또한 설희에 대하여 욕망을 갖는다. 이것은 결국 분이의 질투를 불러 일으키게 되고 6장에 이르러서는 그 갈등의 고조가 사건의 고조로 나타난다. 분이의 질투는 억쇠의 아이를 가진 설희의 죽음과 득보에 대한 살해기도를 가져오고 분이의 영원한 떠남을 낳는다. 억쇠는 힘을 쓸 수 없다는 허무에의 인식으로 평범한 인간으로 후사를 잊고 살아가기를 결심한다. 이것은 가장 소극적인 자세로서의 허무에 대한 반항이다. 그러나 그 또한 실패하고 만다. 그 실패는 표면적으로는 불륜관계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황토골의 운명이 낳은 것이다. 4장-5장의 인물간의 갈등은 일제와의 '대결상황'을 나타내며, 6장에서의 사건의 고조는 '상황의 악화'를 의미한다.

7장의 의미망은 <허무에의 투신>이라고 집약시킬 수 있다. 6장에서 허무에의 반항이 실패로 끝나게 되자, 다시 무의미한 싸움을 벌임으로써 허무에 투신·몰입하게 된다. 7장에서는 분이를 찾아나서는 득보의 가출과 득보를 기다리는 억쇠의 고독이 나타난다. 득보가 없으면 억쇠는 무의미한 존재에 불과하다. 따라서 억쇠의 고독은 '戀戀之情'이 아니라 대상(힘의 발산대상)이 없는 '하나'의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는 고독이다.<sup>15)</sup> 득보도 또한 억쇠의 거동을 살핀다. 억쇠가 없는 득보도 자생능력을 상실한다. 그들 사이에 있어서는 운명의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특기할 사항은 분이의 딸이 남는다는 여운이다. 황토골의 풍수지리는 새로운 장사가 나타나 당나나 장수가 끊어 놓은 맥을 다시 이어 연맥설화를 탄생시키기 전에는 비극이 연속된다는 암

15) 崔炳卓, "김동리 <황토기>에 나타난 풍수설화의 모티브와 그 구조 및 문학적 정신", 北岳論叢(1)(국민대 대학원, 1983), p.37.

시와 같은 것이다. 즉, 본이의 딸은 운명의 제승자인 동시에 운명의 극복주체가 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7장에서 본이의 딸의 등장과 득보와 억쇠의 싸움은 억압적 상황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극복의지와 민족의 숙명성'을 상징한다.

이상의 의미망의 탐색과 의미기능 파악을 통하여 <황토기>의 플롯을 다음과 같이 체계도로 나타낼 수 있다.



<황토기>는 플롯체계도에서 보듯이 표면구조와 심층구조가 이원적으로 통합된 미적구조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표면적으로는 '운명론적 허무구조'로 운명에 의하여 비극이 결정지어진 억쇠, 득보 두 인물이 서장에 제시된 세 가지 설화에서 비롯된 운명의식에 따라 허무를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반항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허무에 투신·몰입하고 만다는 이야기 구조를 보인다. 그러나 <황토기>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 구조가 고도로 은폐되어 있다. 즉, 억쇠라는 인물을 통해서 힘이 있으나 발휘할 수 없는 민족을 상징하고, 어깨에

침을 맞기를 강요당하는 억쇠를 통한 일체에 억압당하는 민족의 비극적 상황 상징, 그리고 억쇠와 득보의 싸움과, 운명의 계승자요 극복주체가 될 분이 딸의 인물설정을 통한 비극적 상황에 대한 극복의지로 엮어지는 '역사적 상징구조'가 그것이다.

<황토기>의 플롯의 미적가치는 도입액자의 기능과 상징성에 있다. 액자의 기능에 대해서 헤르베이트 자이들러 (Herbert Seidler) 는 5가지로 말한다. 첫째, 액자 자체는 내부이야기를 위한 機緣을 제시하며 둘째, 액자는 왜 내부이야기가 이야기되어지느냐의 가장 단일하고 외적인 점에 있어서의 목적의 진술이며 셋째, 액자는 거리화에 봉사할 수 있으며 넷째, 공상적이고 환상적인 내부이야기가 전혀 일상적인 관계로 이루어질 때 각성의 형태일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자의 특유한 예술적 의미로 예술작품의 밀착과 압축의 기능을 한다.<sup>16)</sup>

<황토기>에서의 액자의 기능은 1차적으로는 내부이야기를 암시하면서 내부이야기의 앞에서 미리 주제의식을 상징적으로 투사시키고 있다. 그리고 도입액자는 내부이야기의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건들에 개연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황토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논리적 개연성을 띠지 못하는 성격의 인물들이고, 그 인물들이 벌이는 사건, 행동 또한 인과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과성의 결여를 도입액자가 상징하는 운명의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들이 작품이 읽으면서 허황된 이야기로 느끼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느끼는 것도 도입액자의 기능에서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황토기>의 도입액자는 이야기의 특수한 의미를 상징적으로 강조시켜 플롯자체의 미적가치를 높이고 있다.

<황토기>의 미적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는 것은 심층구조의 은폐술이다. 이것은 1930년대, 적극적으로 민족의식이나 극복의지를 문학으로 형상화할 수 없었던 시대상황이 낳은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16) 李在銑, 韓國短篇小說研究(일조각, 1975), pp. 99~100.

이상에서 플롯분석을 통해 작품의 미적구조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작품의 구조 해명에 미비한 점이 많게 된다. 따라서 사건간의 인과관계 및 작품전체와의 연계를 위해 다음에는 작중인물의 성격과 욕망구조를 살펴보겠다.

### 3. 작중인물의 갈등구조

#### 1) 퍼스넬리티의 작용원리

〈황토기〉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단순성을 보인다. 본고는 인물의 성격과 심리구조를 프로이드의 퍼스넬리티(personality)의 조직과 본능적인 일면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이 소설에 나타난 인물들은 각기 상대성을 갖는다. 황토골의 주민과 역쇠 부모 사이의 대립관계, 역쇠와 득보 두 장사간의 대칭관계, 분이와 설희의 대립이 그것이다. 그런데 〈황토기〉의 등장인물은 모두 퍼스넬리티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본능(id), 자아(ego), 초자아(super ego)의 구비조건에서 어느 한두 가지가 결여된 자들이다. 이 세 체계가 통일성 있게 조화되어 있어야만 건전한 인간일테지만 그들은 대부분 일요소적인 인물들이다.

주민들은 전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 그 현실을 위배할 경우 마을이 망한다는 기존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의 심리는 초자아에서 볼 수 있는 도덕이나 윤리의 측면에 속할 수 없다. 그들에겐 이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아가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기 보존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자아의 기능이 다분히 이기주의적인 것이라고 보았을 때, 백부를 비롯한 주민들은 현실원리의 지배만을 받는 자아(ego)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대조되는 역쇠의 부모는 이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초자아(super ego)에 해당될 것이다.

역쇠와 득보의 심리구조는 더욱 단순성을 보인다. 둘에게서는 이질성을 찾을 수 없는 공통심리이면서도 상대성을 지닌다. 그들의 싸움은 목적도, 조건도 없다. 역쇠와 득보는 다분히 디오니소스적인 인간형으로서 건장한 원시인

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서로 다른 개체이지만 서로가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과 타고난 고뇌 속에서 괴로워한다.<sup>17)</sup> 싸움의 발단은 분이와 설희이지만 피를 보고야마는 격렬한 싸움을 통해 즐거움과 희열을 느낀다.

한 철에 한두 번씩 이 안내벌에서 대개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었지만,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때같이 가슴이 환히 트이도록 즐겁고 만족할 때가 없다. 그것은 아무 것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요 보람이요, 그리고 거룩한 향연이기도 하였다.<sup>18)</sup>

득보의 목을 안고 한참 동안 얼치락 뒤치락 하던 억쇠는 갑자기 큰 소리로 절절 울어 대었다. 그의 왼쪽 귀가 붙어 있을 자리엔 찢긴 살과 피가 있을 따름 귀는 절반이나 득보의 입에 가 들어 있고 득보는 아까는 듯 그것을 얼른 뺀어 내려고도 하지 않았다.<sup>19)</sup>

그들의 공통점은 에네르기 발산의 쾌감원리에 있다. 본능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체적 욕구의 해소이다. 그들 싸움의 동기가 되는 것은 승부욕이 아니라 체내의 에네르기를 발산함으로써 쾌감을 갖는 본능에 불과하다. 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들은 일찌기 긴장의 체험을 가졌다는 것이다. 본능적 에네르기의 일정한 방향을 가진 흐름이 자아나 초자아의 과정에 의해 저지를 받을 때 본능적 에네르기는 저항을 돌파하고 환상이나 행동에 의해 그 에네르기를 방출하려고 한다.<sup>20)</sup> 억쇠가 마을에서 설화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제재를 받은 긴장이나, 득보가 고향에서 살인을 하고, 대가집 부인과 관계를 맺어 도덕과 법에 의해서 밀려났을 때의 긴장은 동일한 것이다. 그러한 긴장에서 그들은 허무한 싸움으로 에네르기를 방출하는 것이다. 본능은 퍼스널리티가 형성되는 토대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드 이상의 발전을 요구하지도 않고,

17) 朴英順, 金東里小說에 나타난 人物類型研究(동국대 대학원, 1986), p. 12.

18) 金東里, 前掲書, pp. 384~385.

19) 金東里, 前掲書, p. 388.

20) 켈빈 S 호을, 프로이드심리학입문, 황문수역(범우사, 1979), p. 79.

또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인물들은 운명적 허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심리구조는 힘을 과시함으로써 쾌락과 희열을 느끼는 기본적인 본능에 머물러 있다.

분이와 설희에게서는 억쇠와 득보에게서처럼 대칭의 공통점을 찾을 수 없고 다만 상대의식의 본능만이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설희가 이바지하는 본능을 가졌다면 분이는 죽음의 본능을 지니고 있다. 프로이드는 무기물에 작용한 우주의 힘이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꾸어 놓은 지구의 진화단계에서 죽음의 본능이 생명체에 자리잡게 되었다고 한다. 죽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불변의 무기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분이의 유기물에 잠재한 죽음의 본능은 설희에게로 진행하고 있다. 설희가 초자아에 가깝다면 분이는 지극한 본능에 해당될 것이다.

결국 <황토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퍼스널리티의 3요소의 통일된 조화가 결여된 단일요소적 유형<sup>21)</sup>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욕망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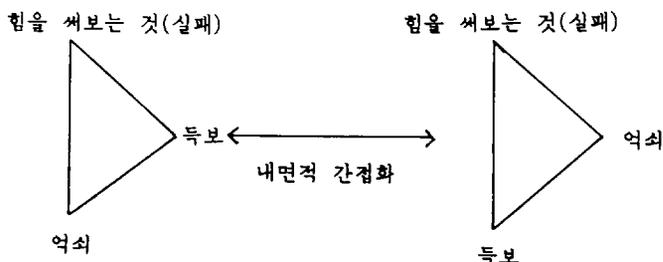
모든 인간은 항상 욕망을 꿈꾸며 살게 마련이다. 욕망이 달성될 때, 인간은 삶의 현장에서 행복한 관계를 체험하게 되고 욕망이 거부되며 소외되고 방해를 받을 때,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든 갈등의 심리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작중인물의 갈등구조는 근원적으로 작중인물의 욕망의 세계로부터 생산된다는 의미에서 욕망의 탐구는 갈등연구의 보다 근원적인 한 방식이 될 수 있다.<sup>22)</sup> 인간은 항상 욕망을 통하여 대상을 인식하기 시작하며 행동의 세계로 나아간다. 욕망이 외적으로 표출될 때 행동으로 나타나며, 그것이 내면화될 때 심리적 행동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작품의 플롯, 인물의 행동과 욕망구조 사이에는 긴밀한 유기성을 가지게 된다. 이런 욕망탐구의 방법에 하나의 원리를

21) 崔炳卓, "김동리의 <황토기>에 나타난 풍수설화 모티브와 그 구조 및 문학적 성", 北岳論叢(1) (국민대학 대학원, 1983), p. 40.

22) 安成洙, 한국 근대 단편소설의 플롯연구 시론(중앙대 대학원, 1989), p. 22.

제공한 사람이 바로 르네 지라르다. 그는 소설의 내면적 구조와 사회의 내면적 구조의 동질성을 파악하여 소설작품의 구조분석에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였고, 작중인물의 욕망구조를 그 인물을 탄생시킨 사회구조와의 상동성 속에서 파악하여야 한다<sup>23)</sup>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모든 작중인물의 욕망구조가 사회구조와의 상관성 속에서만 생성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이론을 형태론적 차원에서만 원용하고자 한다.

① 억쇠와 득보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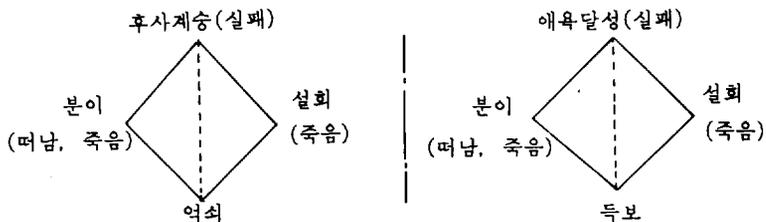


<황토기>에서 억쇠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은 사회로부터 수용되지 못한다. 그것은 동기를 들고 풍물을 치며 두레논을 매는 동네 사람들과는 동떨어져 산기슭 논배미에서 혼자서 논을 매는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힘을 쓰는 자리에는 나서지 말고 힘 쓸 날을 기다리라는 부모의 유언과 힘의 표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일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억쇠는 힘을 마음대로 써보고 싶은 억눌린 욕망을 갖게 된다. 그런데 억쇠는 힘을 써보고 싶은 욕망(대상)을 성취시킬 수 있는 득보(중개자)를 만난다. 억쇠가 득보를 만났을 당시의 쾌감을 <황토기>에서는 '순간 억쇠는 문득 자기 몸이 공중으로 스프르 떠오르는 듯한 즐거움이 가슴에 솟아오름을 깨달으며 저도 모르게 멱살 잡았던 손을 슬그머니 놓아버렸다.'<sup>24)</sup>고 표현하고 있다. 억쇠는 득보를 만나기 이전에는 마음 속에 이글거리는 불꽃을 가진 가능성을 잠재한 평면적 인물이었다. 그런데 억쇠가 득보를 만난 후부터는

23) 르네 지라르, 소설의 이론, 김현 역(박영사,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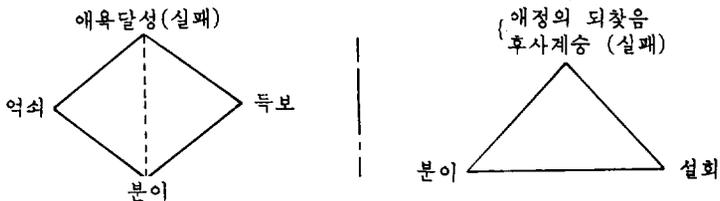
24) 金東里, 前揭書, p.392.

두 사나이의 눈에서 '땅속의 유흥이라도 녹일듯한 무서운 불길이 번쩍거리는' 서로의 잠재된 욕망을 표출하고 있다. 곧 두 인물은 서로의 힘겨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존재와 의미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식시키고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억쇠와 득보가 서로 단순한 주체와 증개자가 아니라, 억쇠의 증개자인 득보도 대상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사이에는 서로 동일한 대상을 경쟁적으로 욕망하고 있는 내면적 간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의 욕망추구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힘을 쓰고 싶은 욕망을 부정적인 모습으로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싸움이 단순한 억눌린 힘의 발산이라는 원초적인 욕망을 달성시키려 한다는 뜻에서는 허무에 대한 극복의지는 될 수 있지만 허무에의 초극은 될 수 없다.



또한 억쇠는 설희와 분이를 통하여 후사계승의 욕망을 성취시키려 한다. 반면 득보는 분이나 설희에게서 애육달성의 욕망을 달성하려 한다. 이런 억쇠와 득보에게 있어서 후사계승, 애육달성의 증개자인 분이, 설희는 단지 억쇠와 득보의 욕망을 성취시키기 위한 싸움을 돕는 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득보와 억쇠의 애육달성, 후사계승의 욕망 또한 분이의 떠남, 설희의 죽음으로 실패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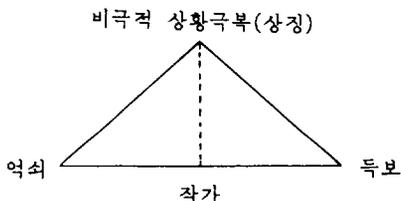
① 분이의 경우



본이는 억쇠와 득보 양자를 함께 취하기 위하여 서로를 증개자로 삼으면서 교묘히 양자 사이를 오가며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다. '정부는 정부, 본부는 본부란 속'으로 억쇠, 득보를 통하여 애육달성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억쇠가 설회를 데려오고 득보가 설회에게 관심을 갖자 본이는 설회에게서 극심한 경쟁의식을 드러낸다. 이 본이의 비뚤어진 욕망(불륜관계)과 경쟁의식은 결국 설회의 죽음, 득보에 대한 살해기도를 낳는다.

따라서 <황토기>의 모든 인물들의 욕망추구는 실패하고 있다고 보겠는데 이들의 실패는 혈을 잘린 황토굴의 운명이 낳은 숙명적인 결과였다. <황토기>는 작중인물들이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극적 운명에 반항하지만 결국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귀착되고 마는 비극적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③ 작가의 경우



마지막으로 작가의 욕망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작가는 억쇠와 득보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상황과 민족의 비극적 상황에 대한 극복을 상징적으로 욕망하고 있다.

4. 주제의 상징성과 문학성

지금까지 김동리의 <황토기>을 논하면서 '현실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그린 것으로 억쇠와 득보의 싸움은 허무에의 투신'<sup>25)</sup>으로 보는 견해나 '동리가 모든 작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25) 徐首生, "황토기의 구조와 형태분석", 장암지현영선생화갑기념논총(형설출판사, 1971) p. 206.

허무에의 수락이나 복종이 아니면 허무에의 투신이었고, 허무에의 도전이나 반항이 아니면 그것의 초극이었던 것이다. <황토기>가 氏의 가장 노골적이며 적극적인 허무에의 반항이었다.<sup>26)</sup>는 견해 및 '허무적인 운명의식'<sup>27)</sup> 등 허무에의 의지나 허무에의 반항으로만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설화에 충실하였을 뿐 현대적인 새 모탈은 발견하지 못하였다'<sup>28)</sup>고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작품의 단면만 보고 플롯과 인물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데서 발생한 오류라고 지적하고 싶다. 앞서 작품의 플롯을 분석하면서 살펴 보았듯이 <황토기>는 억쇠와 득보, 두 비극적 인물을 통해서 일제의 압박 속에서 무의미한 삶을 지속해야 하는 우리 민족의 운명과 울분 그리고 비극적 상황에 대한 극복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황토기>의 문학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혹자는 <황토기>를 설화를 전제하고 그 도식에 맞춘 조립적 구성에서 끝났다고 한다. 그러나 인물의 행위를 설화에 대입한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풍수설화를 모티프로 하여 상징적 인물을 창출해냈다는 데에 주시해야 할 것이다. 두 개의 산맥을 용으로 표현하는 풍수설화를 모티프로 하여 다시 억쇠와 득보를 내세우고, 한민족과 일제의 운명적 대결구조를 상징적으로 형상화시킨 것은 작가의 탁월한 장인의식과 창조정신의 소산이 아닐 수 없다.

- 
- 26) 趙演鉉, "김동리론", 동리문학이 한국문학에 끼친 영향(중앙대 문예창작과, 1979), p. 154.  
 27) 丘昌煥, "김동리의 문학세계", 동리문학이 한국문학에 끼친 영향(중앙대 문예창작과, 1979), p. 14.  
 28) 張德順, 說話文學概說(삼우사, 1975), p. 248.

### Ⅲ. 결 론

이상에서 김동리의 〈황토기〉를 시대적 배경과 설화모티프와 플롯체계, 인물의 갈등구조, 작품의 주제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이 쓰여질 당시 일제의 압제 상황으로 보아 〈황토기〉는 고도의 상징적 은폐수법을 쓰고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그 은폐수법은 표층구조와 심층구조가 이원적으로 통합된 플롯체계에 있다. 〈황토기〉는 표면적으로는 '운명론적 허무구조'로 되어 있으나 심층적으로는 '역사적 상징구조'를 가지고 있다.

셋째, 〈황토기〉는 도입액자의 기능이 전체 플롯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도입액자는 내부이야기의 사건전개에 개연성을 부여하며 주제의식을 강렬하게 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작중인물은 모두 퍼스낼리티의 통일적 조화가 결여된 단일요소적 유형으로, 인물간에 서로를 통해 욕망을 추구하지만 그 욕망추구는 실패하고 만다. 그 실패는 운명론적으로 결정지어진 것이었다.

다섯째, 〈황토기〉의 주제는 단순히 허무에의 의지나 반항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운명과 울분, 그리고 비극적 상황에 대한 극복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고는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황토기〉의 플롯, 인물, 주제를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적으로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 작품을 좀더 본격적인 정신분석학적인 비평방법과 나아가 신화비평의 방법으로 조명해 보는 것도 이 작품의 총체적인 성격을 밝히는 데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구창환(외). 동리문학이 한국문학에 끼친 영향. 중앙대 문예창작과, 1979.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 일지사, 1976.  
김치수(편저). 구조주의와 문학비평. 홍성사, 1980.  
백 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68.  
백 철(외). 동리문학연구. 서라벌예술대학, 1973.  
서수생(외). 장암지현영선생화갑기념논총. 형설출판사, 1971.  
이보영. 식민지시대문학론. 필그림, 1984.  
장덕순. 설화문학개설. 삼우사, 1975.  
조연현. 한국현대작가론. 청운출판사, 1965.  
르네 지라르. 소설의 이론. 김현 역. 박영사, 1981.  
캘빈 S 호울. 프로이드심리학입문. 황문수 역. 범우사, 1979.

### <논 문>

- 강중탁. 풍수설의 국문학적 수용양상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 논문, 1987.  
권성길. 김동리 소설의 죽음의식에 대한 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1986.  
박양호. 김동리 작품의 사상적 배경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1976.  
박영순. 김동리 소설에 나타난 인물유형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86.  
안성수. 한국 근대 단편소설의 플롯연구 시론.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89.  
이미림. 김동리 초기문학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최병탁. 김동리의 <황토기>에 나타난 풍수설화의 모티브와 그 구조 및 문학적  
신. 국민대 대학원, 1983.